



'목동들의 경배', 안 데 브레이 작



나누는 공동체, 더불어 사는 공동체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천주교회

ST. FRANCIS OF ASSISI CHURCH KOREAN COMMUNITY

Address: 135 West 31st Street, New York, NY 10001

Phone : 212.736.8500 (EXT 355, 384)

347-834-5784

Website : www.stfrancisk.org

청년 website : facebook.com/groups/yagfyfny

주임신부 : Fr. Thomas Gallagher, O.F.M.

지도신부 : 김 진열 가롤로 (작은형제회 (프란치스코회))

지도수녀 : 김 효주 (롯데 포교베네딕도회 서울수녀원) seoulosb@gmail.com

사목회장 : 이서원 마리로사 201.744.9189

한국학교 : stfrancisks@gmail.com

주님 성탄 대축일 밤 미사

제1독서 이사 9,1-6 제2독서 티토 2,11-14 복음 루카 2,1-14



(후렴) 오늘 우리 구원자 주 그리스도 태어 - 나셨 다.

성가 입당:99 예물준비:101 영성체:112 파견: 성가대특송



신앙고백 :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

✦ 한 분이신 하느님을 ◎ 저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형 무형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또한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외아들,

영원으로부터 성부에게서 나신 분을 믿나이다.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한 본체로서,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나이다.

성자께서는 저희 인간을 위하여, 저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음을 믿나이다.

또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셨음을 믿나이다. <밀줄 부분에서 모두 머리를 깊어숙임>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수난하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흘날에 부활하시어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계심을 믿나이다.

그분께서는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또한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이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영광과 흠송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 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나이다. 죄를 씻는 유일한 세례를 믿으며 죽은이들의

부활과 내세의 삶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주님 성탄 대축일 낮 미사

제1독서 이사 52,7-10 제2독서 히브 1,1-6 복음 요한 1,1-18



(후렴)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온세상 땅끝마다 모두보았네.

성가 입당:102 예물준비:109 영성체:110 파견: 성가대특송

미사 봉헌

연미사

김학순
한영순 안나
박난성 요셉프란치스코, 양세양 요셉
장훈 고르넬리우스 신부님
박현진 스테파노
한시찬 리파엘
이창희 필립보

봉헌

박혜화 도미니카
배옥희 소피아
양미숙 마리아
신윤길, 신애송
박알버트, 아그네스
가족
박알버트, 아그네스

생미사

본당공동체 가족들의 영육의 행복
구사목위원, 신사목위원
김가롤로 신부, 김효주 수녀
김가롤로 신부, 김효주 수녀
본당공동체 가족들
박도미니카 가족 큰집
문애릭 엘리시오
이로진 요한, 이로잔 캐더린
김태희 레아 생일축하
이기원 스테파노 영명축하
정영시 스테파노, 정성경 니콜라오
이중근 요셉, 조영란 가타리나 가정
서정원, 이성례 벨라베타 건강
김미화 마리클레어
임노엘 가정
강호영 안드레아 가정
조우진 루치아노 가정
최예준 사도요한
김진열 가롤로 신부
정희정, 노아 가정 축하
박수정 크리스티나 영육 건강
민완준 필립보, 민덕미 안젤라 건강
조성자 테레사

봉헌

박알버트, 아그네스
박알버트, 아그네스
박알버트, 아그네스
안선정 마리안나
안선정 마리안나
안선정 마리안나
문홍빈
이미숙 안나
노희정 데레사
우리즐거움의 원천
정다경 마리아
서인철, 이영노
서인철, 이영노
서인철, 이영노
서인철, 이영노
서인철, 이영노
조용선 헬레나
익명
익명
신애송 헬렌
양미숙 마리아
익명
한서희, 안나

미사, 성사, 교리 안내	
주일 미사	오전 09:15 윗 성당
청년 미사	매월 2번째 토 18:00 아래 성당
고해 성사	08:30-08:50 아래 성당 고해소
혼인 성사	신부님께 직접 문의
유아 세례	매월 2번째 주일 미사중 *신청:사무실
봉 성 체	매월 1번째 목요일 *신청:사무실
예비신자교리	매주 주일 11:00



“최고의 선물, 아기 예수님이 오셨어요!”
주님 성탄의 은총이
교우분들과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목위원 이·취임

2022년 사목위원 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새롭게 봉사해 주실 2023년 사목위원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2023 사목위원 명단	
지도 사제	김진열 가롤로
지도 수녀	김효주 수녀
사목 회장	백이백 아오스딩
여성부회장	강혜운 크리스티나
총 무	백승민 안드레아
재 무	고은경 모니카
전례분과	분과장:이지연 안나레지나
	부분과장:이영노 율리안나
교육분과장	이 지훈 아네스
선교홍보분과장	박기목 알버트
성모회장	윤은수 카타리나
연령회장	표해심 카타리나
요셉회장	강호영 안드레아
청년분과	분과장:강경모 토마스아퀴나스
	부분과장:김병훈 레이몬드
청년회장	양정윤 켄마
서 기	한서희 데레사

지난 주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Cash \$ 1,030 양복연 최나은 이은지 김승범 박기목
	Check \$ 800 고은경 송명근 신윤길 강혜숙
감사헌금	\$ 400 김승범 강혜숙
합 계	\$ 2,230

교무금

2022년도 한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형편에 맞게 금년도 교무금을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해도 교우분들의 협력으로 공동체가 운영될 수 있었습니다.

회계결산 보고: 2020년 12월~2021년 11월

총수입: \$94,067.
 지 출: Cash (\$57,403.) Check (\$29,163.)
 총지출: (\$86,566.)
 Total Balance \$7,501.
 2차헌금 총수입: \$3,301.
 2차헌금 총지출: (\$3,872.)
 Total Balance (\$ -571.)
 경애원 수입: \$550.
 2021년 11월말 현재 총 합계 \$ 7,480.
 한국학교 기금 \$2,000. X 12 달 = \$24,000.
 총 이월금 \$79,307.00

고해성사 없습니다.

12월 23일~1월 22일(설날)

미사전 일찍 도착하여 경건한 마음으로 미사 준비를 합니다.

미사에 09시까지 성당에 도착합니다. 옆 사람과 잡담하지 않고 해설자와 함께 성경 봉독합니다. 그리스도를 만나 뵈기 위한 마음 준비를 합니다.

1월 1일 새해, 천주의 성마리아 대축일

09시 15분 미사후 더 큰집, 원조에서 떡국 봉사해 주십니다. 고맙습니다.

사용하신 주보는 집으로 가져갑니다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본인이 한번 보신 주보는 반드시 가져갑니다. 성당에 두고 가지 않습니다.

한인공동체 온라인 서비스 안내

- 1. 미국 본당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합니다. 구글에서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성당"을 검색하세요.

stfrancisnyc.org > korean-ministry > Translate this page
Korean Ministry - Saint Francis of Assisi
 클릭하면 한인공동체로 바로 연결됩니다.



공지사항 기부 후보

- 2. 온라인 후보의 경우, 하단의 <우리들의 정성> 코너는 삭제되며, 성당을 찾으시는 분들께 제공되는 인쇄본 후보에만 게시됩니다.
- 3. 우편으로 체크를 보내실 경우, 보내실 주소(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송금 후 수취인 전화 : 347-834-5784 로 연락 바랍니다.
- 4. "기부" 버튼을 클릭하시면, 한인공동체 교무금이 아니라, 미국 본당을 위해 사용됩니다.
 - A. 체크로 보내실 경우 - 수취인은 꼭 써 주세요.
Church of St. Francis of Assisi



체크 보내실 주소 : Carolo Kim
 135 West 31st Street, New York, NY 10001

B. 온라인으로 보내실 경우
 은행명 : Chase Bank
 수취인 :
 Church of St. Francis of Assisi Korean Ministry
 Routing no / ABA no : 021000021
 Checking Account no : 339500161165
 은행주소: 1260 Broadway, New York, NY 10001

영원한 도시 이태리 로마, 평화의 아씨시 성지순례

출 발: 2023년 6/18(일)저녁 도착: 6/23(금)오후
 포함사항: 항공, 호텔 1급(2인1실) 1일 3식사, 전용버스, 인솔자, 현지 가이드, 바티칸 천지창조 박물관 입장 포함
 신청마감: 1월10일까지 디파짓 \$1500 나머지 출발 30일 전 완불
 순례경비: \$2600, 모든 신자와 가족들이 참여할수 있습니다.
 코비드이후 항공 변동으로 인해 신속한 예약 부탁드립니다.
 *주 최: 맨하탄성당 울뜨레아, 신청: 김미화 클레어 917-485-0530

투병 중이신 분들 위해 기도합니다.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 Mt 25,4

김순한 루시아, 김옥지 아가다, 이경희 미카엘라, 김동희 헬레나, 정창동 폴리나, 지군자 스테파니, 진정은 마리아, 이진자 세실리아, 이병국 요한, 이경봉 요셉그레고리오

Nest Seekers
 INTERNATIONAL
 부동산
 크리스 박
 krishap@nestseekers.com
 (917)370-0394

ISC NEW YORK
 International Student Consulting
 졸업/OPT 후 진로고민 및
 진학/취업/자기소개서/면접준비 무료상담
 iscnewyorkmetro@gmail.com
 1-917-386-7405

이민전문 (아오스딩)
백이백 변호사
 201-224-3400
 718-445-0345
 Paicklaw@gmail.com

WONJO
 23 W 32ND STREET, NEW YORK
 212-695-5815

120 W 58th St. Manhattan, NY 10019
1205 WEST 8 WINE & LIQUOR
 212-265-0333 (FREE DELIVERY,
 MON-SAT:11AM-11PM/ SUN: 12PM-9PM)

더큰집
 32 W 32ND STREET NEW YORK
 TEL. 212-564-8238

마리아투어
Maria Tour USA
 성지순례
 박 아그네스
 212-594-7773
 646-808-7322

뉴욕 맨하탄 NYC INTEGRATIVE ACUPUNCTURE
 마음힐리언스 한방병원
 212-203-0072
 Kakaotalk ID: nycacu

광고주를 찾습니다

광고주를 찾습니다

주일	해설	1독서	2독서	보편지향기도	성찬봉사	복사1	복사2
12월 24일	이지훈	강호영	민덕미	-	유정옥	한서희 최예준 김민규 양지수 김승현	
12월 25일	장혜윤	정은철	배수아	배수아	김영숙	한서희 최예준 김민규 양지수 김승현	



백이백 아오스딩(신임 사목회장)

오, 주님
 주님의 길을 받아들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주님은 제게 타향에서 태어난 작고 무력한 아이로 오십니다.
 주님은 저를 위해 자기 땅에 오시어 이방인으로 사십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 도시의 성벽 밖에서 범죄자로 죽으십니다.
 자기 백성에게 거부당하시고 벗들에게 오해받으시고
 하느님에게마저 버림받은 채로 말입니다.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면서도 저는 사랑받고 인정받으려 하고,
 이 세상을 내 집 삼으려 하며,
 저를 괴롭히는 그 자그마한 소외감에서 어떻게든지 벗어나려 합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느끼는 소속감보다
 오히려 이따금씩 갖는 집을 잃은 듯한 막막한 심정이
 저를 주님께 더 가까워지게 하는 것임을 알게 하소서.

제가 주님의 탄생을 진정으로 축하할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아늑한 내 집일까요? 낮은 타관일까요?
 반겨 주는 친구들 틈일까요? 미지의 이방인들 틈에서일까요?
 행복감 속에서일까요? 외로움 속에서일까요?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하는 그런 일에서
 제 자신이 굳이 달아나지 않도록 이끄소서.
 주님이 이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닌 것처럼 저도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에...

그런 심정이 들 때마다 실은 감사의 기회요 주님을 더 꼭 끌어안고
 주님의 기쁨과 평안을 더 온전히 맛볼 수 있는 기회임을 알게 하소서.

주 예수님,
 오셔서 제 심령 가장 비참한 곳에 저와 함께 머무소서.
 여기가 바로 주님의 구유가 있을 곳이에요 주님께서 빛을 비취 주실 곳임을 믿습니다.
 주 예수님, 오소서, 오소서.

아멘.

헨리 나우웬(Henri Nouwen, 1932~1996) : 신부, 작가

찬미 예수님!
 백이백 아오스딩입니다. 부족한 점 투성이인 제가 사목회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꿈에도 생각지 못한 자리이지만 주님께서 필요한 자리에 불러주셨으리라 믿고 무한히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주님께 의탁하고, 신자 여러분의 도움에 의지하여, 부족하나마 주어진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고, 지지해주시고, 또한 잘못된 점은 지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서원 마리로사(전 사목회장)

St. Francis of Assisi 한인 성당!
 전철, 버스 갈아타며 주일이면 모여드는 하느님 자녀들! 미움이 있을땐 사랑으로 감싸고 섭섭함의 상처는 용서로 위로하네.
 만하탄 교우들의 깊은 믿음은 하느님 자비로 그 뿌리가 튼튼하여지고, 성모님의 따뜻한 사랑으로 푸르러 가는구나! 25년의 장구한 세월을 지켜냈던 그 힘은 하느님께 감사하는 우리의 효심이라. 만하탄 형제 자매들이여! 아파하는 이웃을 함께 껴안고 성령님께 의탁하며 함께 가요!